죽음을 준비하는 집중수행 열린다

세첸코리아 4월 13일부터 '죽음 명상'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200년 전 티벳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담은 책이 작성됐다. 바로 〈티벳사자의 서〉다. 죽음을 생각하며 현재 삶의 새로운 시각을 주는 이 책을 통해 티벳불교는 새로운 수행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런 〈티벳 사자의 서〉에 정통한 티벳불교 수행자에게 배우는 죽음명상 집중수행의 장이 마련된다.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는 4월 13~14일, 4월 15~20일 약 1주일간 세계적인 죽음명상 전문가 '앤드류 홀로첵' 초청 죽음명상 수행을 개최한다.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행은 크게 1박 2일간의 '죽음준비 대중수행', 5박 6일간의 '꿈요가 집중수행'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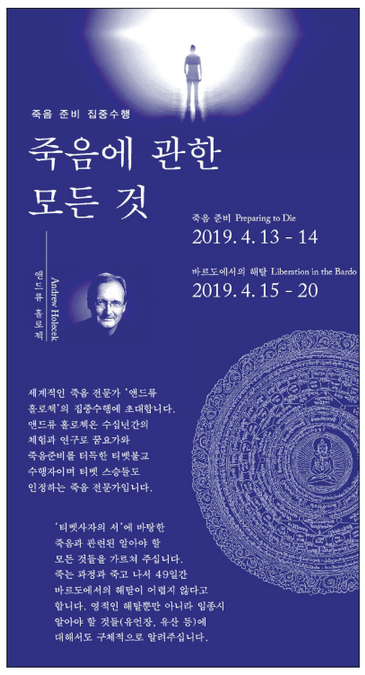
먼저 죽음준비 대중수행은 4월 13~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죽음준비-해야할 모든 것부터 죽음의 구체적인 과정,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돕기, 임종 당시 알아둘 모든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수행

4월 13~14일 국제선센터
4월 15~20일 대구 도림사
죽음수행 안내 및 집중수행

美죽음명상 전문가 지도나서
티벳불교 죽음관 체험 기회
스님 및 세첸회원 참가특전

신청을 받는다.

'꿈요가, 집중수행'은 4월 15~20일 대구 도림사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잠과 꿈의 원리' '꿈요가-꿈에서 깨어나기' '잠요가-잠을 명상으로 탈바꿈' '임종 당시의 해탈' 등으로 구성



돼 있다.

세첸코리아에 따르면 꿈요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며 또 하나는 정광명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죽는 과정과 잠드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기에 죽고 나서부터 다시 태어나기 전의 중음의 기간을 잘 준비하기 위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꿈요가를 하는 것이다. 즉 매일 잠에 들때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잠에서 깨어나면서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한다.

세첸코리아 측은 "죽는 과정과 죽고 나서 49일간의 해탈 과정에 대해 알고 영적인 해탈을 추구함과 동시에 종교적인 유언장 작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집중수행 지도자로 나서는 '앤드류 홀로첵'은 미국의 영적 지도자로 수십 년간 '자각몽'과 같은 꿈요가와 죽음준비수행을 해온 티벳불교 수행자다. 현재 '고난과 고통' '죽음과 죽는 순간' '명상에서의 문제' 같은 주제로 다양한 수행토론의 장을 열고 있으며, 이러한 수행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안내자가 되고 있다. 저서로는 〈힘과 고통, 영적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기〉 〈죽음을 준비하기, 티벳불교로부터 얻는 실제적 조언과 영적지혜〉 〈꿈요가, 자각몽과 티벳 잠요가로 삶을 조명하기〉 등이 있다. 꿈요가 집중수행 38만원 세첸 회원 32만원, 스님 20만원이다. 참가문의 (010)4442-3960

조계종 복지재단 신규입사자 연수

6개 프로그램 진행, 복지 네트워크 구축 도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이 3월 21일, 1박 2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신규입사자 연수'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총 6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종단과 재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기본 마인드를 함양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연수에서 이준의 대표(한국팔로워십센터)가 '리더를 만들어가는 팔로워들의 힘'을 주제로 신입직원들을 교육했다. 이 대표는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긍정적인 팔로워가 될 것을 강조했다.

남룡 스님(전등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은 불교에 대해 알아가는 교양강좌를 통해 불교사회복지의 바탕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불교교양도 전했다. 또 심목민MC는 참가자들의 친밀도를 높이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늦은 시간까지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이어 갔다.

이튿날에는 마곡사 포교국장 경율 스님과 함께하는 마곡사 순례를 시작으로 박숙경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인권강의가 진행됐다. 박숙경 교수는 사회복지사라면 필수로 알아야하는 인권 이야기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놓치지 쉬운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전문 강사진들의 강의는 사회복지현장 경험이 아직 적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가 근무하는 노인복지관 외에는 잘 몰랐는데, 다양한 영역의 시설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노덕현 기자

불교명상지도사 1급 첫 고시에 46명 응시

87세 최고령 응시자, 군포교사 등 눈길

조계종 포교원이 3월 23일 불교명상지도사 1급 자격고시를 시행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1급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에는 2급 불교명상지도사 고시를 통과한 200명 중 46명이 응시했다.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는 필기와 실기 전형으로 나눠 진행되며 응시대상은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한다. 1년여 동안 2급 교육을 이수하고 2급 고시에 합격하면 대승과 상좌부, 금강승 가운데 한 가지를 전공으로 나머지를 부전공으로 또 다시 1년여 심화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1급 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불교명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이게 1급 고시에 응시한 이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군법당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강선웅 씨는 "멀리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국군장병들에게도 마음의 휴식을 줄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주려 명상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했고 1급 과정에도 도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87세로 최고령 응시자인 김인수 씨는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명상지도사 과정을 공부했다"며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옥련선원 부설 옥련유치원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서목 스님은 "명상지도사 1급은 단계에 맞는 명상수행법으로 불교의 대표적 명상법인 위파사나, 사마타, 간화선 등의 이론과 수행법을 교육해 다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며 "2급보다 질 높은 각도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대중과 어린이 법회 및 유치원 등에서 포교와 수행을 함께 하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번에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1급 불교명상지도사들은 명상관련업에 취직하거나 1년여 교육과 시험을 거쳐 전문지도사가 되면 독립적으로 명상센터를 개원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3월 23일 불교명상지도사 1급 자격고시를 시행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1급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에는 2급 불교명상지도사 고시를 통과한 200명 중 46명이 응시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 일선에서 보다 많은 불자들이 명상을 방편으로 전법 포교행에 나섰으면 좋겠다"며 "시대의 요청은 정신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시켜주는 명상지도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명상지도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커리큘럼 개편과 함께 국가공인자격의 활용처를 넓히기 위한 불교계 내 네트워크에 힘쓸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일주문 35년 만에 환지본처

봉은사-석굴암 3월 28일 협약 체결

봉은사 일주문이 35년만에 환지본처한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3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문화부장실에서 '봉은사 일주문 환지본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봉은사 일주문은 1880년대 건립된 것으로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꼽힌다. 봉은사 중창불사 과정에서 1986년 양평 사나사로 이운, 2011년 오봉산 석굴암으로 자리를 옮겼다.

봉은사 일주문은 우진각 지붕형태로 일주문으로는 보기 드문 형태를 띄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우진각 지붕은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일주문 건립 당시에는 다포계 팔각지붕 형태였지만 변경됐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도일 스님이 아니었다면 봉은사 일주문이 불사 중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잘 지켜주셨다. 본래 자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 스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봉은사 일주문이 제자리에 있어야 가치를 평가받는다는 생각에 조건없이 이운키로 했다"며 "봉은사 중창불사가 원만히 마무리 돼 천년고찰로서 위상을 새롭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을 중재한 문화부장 현법 스님은 "봉은사 일주문이 제자리에 잡으면 전통사찰로서의 봉은사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사찰간의 협약을 통해 문화재 이운이 원만히 성사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봉은사는 이운 후 현재 진여문 앞에 일주문을 복원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www.boryeon.com
연등설치 전문기업
보련기획
조립식 도량장엄등 설치
추가적인 시공(공사) 불필요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